



산불예방 논두렁 태우기

날씨가 한결 포근해진 22일,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봉산면 반월마을에서 산불예방과 병해충 방지를 위해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담양=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건설·조선 장기침체 큰일났다

광주 종합건설업체 4년새 4곳 중 1곳 없어져

전남 조선소 올해 수주물량 확보 단 두 곳 뿐

광주·전남지역 건설과 조선업종이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건설과 조선업이 광주·전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의 장기침체가 경기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와 회생의 몸부림

을 치고 있는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8면〉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57개 조선소 가운데 올 들어 수주 물량을 확보한 업체는 세광조선과 목포조선공업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세광조선의 경우 6천100t급 오일 탱크선 2척과 여수엑스포에 활용될 4만t급 크루즈선 2척을 수주했고 목포조선공업은 컨테이너선 7척만을 수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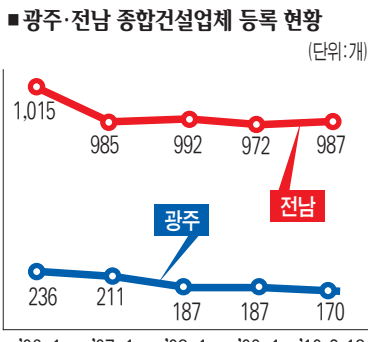
하지만 10만t급 이상 중형급 선박을 수주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비롯, 대한조선·고려중공업·TKS·광성조선·신안중공업 등 도내 중형 조선소 11곳은 지난해 이후 여지껏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세계적인 경기하락으로 물동량이 줄어 해운·조선경기가 위축되자 새 선박 발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내 조선업체가 2011년까지 확보한 작업 물량(193척)의 63.

7%(124척)가 현대삼호중공업에 몰려 있는 탓에 수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우 수주 감소에 자금난까지 겹쳤다. 특히 일부 중소형 조선사들은 자금 압박 등으로 제 때 작업을 못해 기한 내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어 수백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역 건설업도 심각하다. 건설사가 크게 줄고,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종합건설업체 4곳 중 1곳(27.9%)이 지난 4년 사이 없어졌다. 전국 최고 감소율로 전국 평균(7.4%)의 4배에 육박한다. 최근 2~3년간 공사물량이 줄어든데다, 지역건설업체 일부가 구조조정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현재 236곳에 달하던 광주지역 종합건설업체는 2007년 211곳, 2008·2009년 187곳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170곳으로 4년 사이 27.9%인 66곳이 문을 닫아 전국 최악의 감소



율을 기록했다. 전남은 1천15곳에서 987곳으로 28개사(2.8%)가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977개사(7.4%)가 줄어 모두 1만2천225개사의 종합건설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이날 61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9년도 실적 신고를 마감한 결과 수주한 공사 금액은 모두 8조6천815억원으로 전년도의 9조3천83억원보다 6.7% 감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설업과 조선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관급 공사 조기발주, 조선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지사 권역별 순회경선 바람직”

김효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도민·당원 50대50 참여 적정”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남도지사 경선은 당원 직접 투표를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에는 시민배심원제 일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민들의 후보 검증에 위한 방송 토론회 등도 도입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은 선거법상 방송 토론회가 가능한 4월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효석 전남도당위원장은 22일 전남도당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도지사 경선에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며 “특히 경선을 전남도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권역별 순회 경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선은 미국처럼 축제 속에 치러져야 하고, 적어도 당원을 모아놓고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 등이 직접 특정공간에서 투표하는 경선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이른바 ‘체육관 경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도민과 당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비율은 당원·당구에 따라 50대 50이 적정하고, 도민은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은 직접 투표 방법으로 치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차기 민선 도지사는 이명박 후보와 대비되는 지방정

부를 구성하고, 정책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당위원장이 직접 TV토론 사회자로 나서더라도 도지사 3명의 후보의 정책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 경선방식과 관련해 “단체장이 비리로 그만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가장 우선해 일부 후보를 거르는 컷오프로 시민배심원제를 활용한 뒤 최종 후보는 국민경선참여를 통해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체장이 비리로 낙마한 담양, 진도군 등이 시민배심원경선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kci@kwangju.co.kr

친이 “당론 변경 표결”

친박 “결사 저지할 것”

한나라 ‘세종시 끝장토론’ 정면충돌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측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세종시 관련 당내 공식 토론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정안을 관찰하려는 친이와 원안을 고수하는 친박측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관련기사4면〉
한나라당은 오는 26일까지 매일의 총을 열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끝장토론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친이는 3월 초순께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친박이 ‘결사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친이계 김영우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에서 재미를 봤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잘못됐는데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만으로는 (일이) 잘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성운 의원은 “정책을 정치로 비화시키면 안 된다”

며 수정안에 대한 냉정한 접근을 주문한 뒤 “당론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친박 유정복 의원은 “수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국토해양위를 통과할 수 없다”면서 “원안대로 가면 세종시가 거덜나고 나라가 망한다느니 수도분할이니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들어 있다.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정부 부처가 가야 한다”면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친이 주류측이) 왜 그러느냐”고 반문했다.

세종시 문제로 친박과의 결별설이 나도는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최근 제안한 ‘수정안+7개 독립기관 세종시 이전’ 절충안에 대한 재고를 당부했다.

이날 의총에는 146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40명이 발언신청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불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1 성공 기원

기념우표 나온다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포틀랜드(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일에 맞춰 F1 머신이 그려진 기념우표 2종이 발행된다.

22일 F1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암에서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기념하는 ‘2010 포틀랜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념우표’2종을 선보인다.

대회 시작일에 맞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기념우표는 F1 머신이라고 불리는 F1경주차가 트랙을 달리는 역동적인 모습과 함께 F1대회의 상징깃발인 체크무늬를 배경으로 담은 게 돋보인다. 가격은 250원이며 총 150만장이 발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